

# 위기에 빛난 호날두...극적 동점골로 맨유 구출

### 챔스리그 아탈란타전 2골 맹활약 패색 짙던 후반 추가시간 골 2-2 레반도프스키 헤트트릭 뒤편 16강 유벤투스도 4연승으로 16강 확정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패배에서 구했다.

맨유는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탈란타(이탈리아)와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4차전 원정 경기에서 호날두의 두 골을 앞세워 2-2로 비겼다.

조별리그 2승 1무 1패를 거둔 맨유는 조 선두(승점 7)를 유지했다.

아탈란타는 1승 2무 1패(승점 5)로 3위에 자리했다.

선제골은 전반 12분 아탈란타가 기록했다.

두반 사파타가 왼쪽에서 내준 패스를 요시프 일리치치가 왼발로 밀어 넣어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맨유에서는 전반 추가시간 호날두가 해결사로 나섰다.

호날두는 전반 46분 브루누 페르난데스가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뒤로 살짝 내준 패스를 받아 골장 득점으로 연결했다.

아탈란타가 후반 11분 사파타의 추가 골로 다시 앞섰지만, 맨유는 후반 추가시간 또 한 번 호날두의 동점골이 터져 균형을 맞췄다.

호날두는 후반 46분 메이슨 그린우드와 띄운 공

을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오른발 하프 발리 슈트로 마무리해 2-2를 만들었다.

이로써 호날두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4경기에서 모두 득점, 5골을 넣었다.

통계 전문 업체 옵타에 따르면 맨유 선수가 UCL에서 4경기 연속 골을 넣은 건 2003년 4월 윌트 판 니스텔로이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 36세 270일의 호날두는 UEFA 대회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을 기록한 맨유 선수 중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렸다.

F조의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H조의 유벤투스(이탈리아)는 UCL 16강에 선착했다.

뮌헨은 이날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벤피카(포르투갈)를 5-2로 격파했다.

조별리그 4연승을 달린 뮌헨은 승점 12로 선두를 지켰고, 3위 벤피카(승점 4)와 승점 8차로 최소 조 2위를 확보,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자신의 100번째 UCL 경기를 치른 레반도프스키는 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실축으로 아쉬움을 삼켰지만, 3골을 폭발하며 올 시즌 대회 최다 득점자(8골)로 올라섰다.

100경기 동안 그는 81골을 몰아쳐 리오넬 메시(77골), 호날두(64)의 100경기 득점 기록을 넘어섰다.

H조의 유벤투스는 제니트(러시아)를 4-2로 꺾고 역시 4연승을 질주,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올랐다.

파울로 디발라가 멀티골을 작성했고, 페데리코 키에사와 알바로 모라타가 득점포를 가동해 완승을 이끌었다. /연합뉴스



3일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 아탈란타와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호날두가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을 터트린 후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토트넘 새 사령탑에 '우승 청부사' 콘테 감독

손흥민(29)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가 안토니오 콘테(52·이탈리아) 전 인테리 밀란(이탈리아) 감독을 새 사령탑에 앉혔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콘테 감독과 2023년 여름까지 계약했으며 연장 옵션이 포함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누누 이스피리투 산투(포르투갈) 감독을 경질한 지 하루 만에 새 감독을 선임했다.



올해 6월 30일 산투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던 토트넘은 2021-2022시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넉 달만인 이달 1일 그를 경질했다.

결국 토트넘은 산투 감독 선임 전에도 사령탑 후보로 고려했던 콘테 감독과 다시 접촉했고, 이번에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콘테 감독이 EPL 무대로 돌아오는 건 2018년 첼시 지휘봉을 내려놓은 이후 3년여 만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를 이끌며 세 차례 세리에A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14년 8월부터는 이탈리아 국가대

표 사령탑을 지낸 바 있다. 2016-2017시즌에는 첼시를 맡아 EPL 정상에 올려놓았고, 2019년부터는 인터 밀란을 지휘하며 2020-2021시즌 세리에A 우승을 이끌어 '우승 청부사'로 인정받았다. 콘테 감독은 토트넘 구단을 통해 "다시 챔피언에 오르겠다는 야망을 품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에서 감독직을 맡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선수로서, 그리고 감독으로서 나를 돋보이게 했던 열정과 정신력, 결단력을 빨리 팀과 팬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박정환, 신진서 꺾고 삼성화재배 역전 우승

박정환(28) 9단이 신진서(21) 9단을 물리치고 삼성화재배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박정환은 3일 서울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2021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결승 3번기 제3국에서 166수 만에 불계승했다.

1국 패배 뒤 2, 3국을 내리 승리한 박정환은 2승 1패로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박정환은 2011년 후지쓰배, 2015년 LG배, 2018년 몽백합배, 2019년 춘란배에 이어 개인 통산 5번째 세계 메이저 기전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국내의 대회를 통틀어 통산 우승은 32번째다. 최종 3국에서 다시 돌을 가려 백을 잡은 박정환은 좌상귀에서 시작된 초반 접전에서 실리를 확보하며 우세를 잡았다.

불리해진 신진서는 평소와 달리 차분한 추격을 포기하고 급전을 펼쳤다. 실리에서 뒤진 신진서는 상변 백대마 공격에 올인했다.

하지만 박정환은 백 대마를 우회기까지 끌고 내려오며 타가에 성공하자 신진서는 돌을 던졌다.

박정환은 2014년 김지석 9단 이후 삼성화재배에서 7년 만에 우승한 한국 기사가 됐다. /연합뉴스

## '금호고 듀오' 허율·엄지성 U-23 승선

광주FC '금호고 듀오' 허율과 엄지성이 U-23 대표팀에서 어필 무대를 갖는다.

아시아컵 예선에서 3연승을 달린 대한민국 U-23 대표팀이 8일 경주에서 소집돼 16일까지 훈련을 이어간다.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은 새로운 선수들의 전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앞선 예선에 참가했던 멤버들을 제외한 30명의 선수를 호출했다.

광주의 미래인 허율과 엄지성도 명단에 포함돼 경주로 간다.

엄지성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 소집, 허율은 처음 U-23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프로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허율과 엄지성은 빠른 스피드와 재치있는 플레이가 장점이 '고졸 루키' 엄지성은 10월 24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팀의 5연패 탈출을 이끄는 선제골을 넣는 등 올 시즌 4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프로 2년 차인 올 시즌 데뷔전을 치른 허율은 193cm의 큰 키를 활용한 제공권 싸움 등에서 강점을 보여며 팀의 새 공격자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 30일 강원FC와의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몸싸움 끝에 공을 낚아채 자신의 프로 2호골을 장식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골키퍼 김병업, 수비수 정호진



허율 엄지성

등 '미래 자원'들이 이번 훈련에 참여한다. ◇남자 U-23 대표팀 11월 소집 명단

▲GK : 김병업(전남), 백종범(서울), 주현성(서울이랜드), 김정훈(김천상무) ▲DF : 정호진(전남), 김태현(울산), 황태현, 이재익(이상 서울이랜드), 이지솔(대전), 박종영(부산), 이태석(서울), 김윤성(포항), 김태환(수원) ▲MF : 박태준(안양), 이지승(부산), 이수빈(포항), 이진용(대구), 김봉수(제주), 강현목(수원), 고영준(포항), 김대우(강원) ▲FW : 엄지성·허율(이상 광주), 오세훈, 김민준(이상 울산), 신상은(대전), 조영욱(서울), 홍시후(성남), 정상빈(수원), 이호재(포항)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현준 광주시검도회부회장 검도인 최고 칭호 '범사' 등극 이전중·최성훈씨 이어 광주 세번째

김현준(64·검도8단·사진) 광주시검도회 실무부회장이 검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호인 '범사(範士)'에 이름을 올렸다.



김 부회장은 최근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2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2021년 추계 정기총회 감사에서 범사 칭호를 받았다.

김 부회장은 이전중, 최성훈씨에 이어 광주에서 세번째 범사가 됐다.

검도의 칭호는 연사(鍊士), 교사(敎士), 범사가 있다. 범사는 검(劍)을 깊이 이해하고 성품, 지도력, 경기력 등에서 모범이 되며 검도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검도인이 받는다. 대한검도회 청초심심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김 부회장은 검도 명문인 전주고와 조선대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검도팀 초대 감독을 맡아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 검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 현재 광주시검도회 실무부회장을 맡아 광주검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체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김 부회장은 "검도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최고위를 받아 기쁘다"며 "검도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논란 휩싸인 '복불복 말' 근대5종 승마 사라지나

### 사이클로 대체 가능성

한 선수가 수영, 펜싱, 승마, 육상, 사격을 모두 치르는 근대5종에서 '복불복 말(馬) 논란이 일었던 승마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근대5종연맹(UIPM)이 최근 집행위원회 투표로 근대5종 경기 중 승마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게이스드 UIPM이 4일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매체 모두 승마를 대신해 '5종'을 완성할 세부 종목으로 사이클을 거론했다.

근대5종은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전령을 전달하는 19세기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를 모델 삼아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이후 또 한 번 거세진 변화 요구에 '승마 제외'라는 강수가 등장했다.

올림픽 여자부에 출전한 아니카 솔로이(독일)가 승마 경기에서 탄 말이 장애물 넘기를 거부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 '0점'을 받은 일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펜싱, 수영을 치른 뒤 선두를 달리던 솔로이가 승마 성적 탓에 순위가 30위 밖으로 밀려나며 메달과 멀어지자 말을 추첨으로 배정받아 20분 남짓 파악한 뒤 바로 경기하는 방식이 운에 크게 좌우돼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솔로이의 코치가 체적질을 더 강하게 하라고 외치고 직접 주먹으로 말을 때린 점도 드러나면서 말과 제대로 교감할 시간 없이 채찍질해가며 달리게 하는 건 동물 학대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터널스
2관	이터널스
3관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4관	이터널스
5관	이터널스
6관	이터널스, 보이스
9관	이터널스, 고장난 론

7관 씨네케틀: 고장난 론, 에프터: 관계의 함정  
용과 주근깨 공주, 침묵의 숲  
극진관: 풍구는 꽃말려, 겨울, 나무, 왕국과 영주, 내 명의 왕비들

8관 씨네케틀: 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BLACK**

Road of Oasis

STRING

GAC기회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 2021. 11. 20.(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